

[태국, 2013년 5월]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1. 태국 현장 이슈

▶ 새우 조기사망증후군 (EMS)로 새우 생산량 감소 및 관련 기업의 매출 감소

- 지난해부터 양식 새우에 치명적인 EMS (Early Mortality Syndrome)의 유행으로 새우 양식 계에 큰 피해가 보고된 가운데, 세계 최대의 새우 양식 및 수출 국가인 태국의 새우 생산량 역시 약 40% 정도 감소함 ¹⁾
- 세계 최대량의 새우 수출을 하고 있는 태국의 식품 재벌 CPF도 올해 1사분기 순익이 전년도에 비해 92% 감소한 10억 3천만 бат (같은 기간 매출, 87억 4200만 бат)으로 EMS가 새우의 생존율 뿐 아니라 새우 양식 속도를 감소시켰으며 수산 양식 사료의 매출 등 사업에 부정적 영향 ²⁾
- CPF 직영 식품 소매점인 CP Fresh의 태국 내 매장에는 냉동 새우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 ³⁾
- 세계 최대의 참치캔 및 태국 최대의 수산물 가공 업체인 TUF (Thai Union Frozen)도 EMS와 기타 수산물 가공제품의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올해 1사분기 순이익인 54% 감소한 6억 7천 4백만 бат ⁴⁾
- 새우의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여 TUF 등 대형 수산 가공 업체들은 인도와 에쿠아도르 등에서 새우의 수입을 하는 등 기존 공급량의 약 20-30%를 수입할 계획 ⁵⁾
- EMS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태국 바트화의 상승도 새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 1사분기 새우 수출량은 전년 동기 10만 톤에 비해 매우 줄어든 약 57,000 톤 ⁶⁾

▶ 2013 THAIFEX 전시회 수산물 전시관

- 2013년 5월 23일부터 4일간 방콕 Impact Arena에서 개최된 최대의 식품 박람회 THAIFEX에는 다양한 국내외 식품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산물 전시관이 따로 자리를 갖고 대만, 한국, 태국 등 국가관과 대형 업체의 단독 부스가 상담과 전시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를 실시함

Prantalay Marketing Plc 등 수산가공 기업들은 행사 중 인터뷰를 통해 2013년은 태국산 냉동 수산물 수출에 가장 힘든 해라고 밝힘

단 일본 엔화는 달러와 유로화에 비해 환율이 떨어져서 타국 수출이 난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출량의 28%를 차지하며 대조를 보이고 있음

EMS로 인해 태국산 새우의 공급가격은 40-50% 상승하고 미국을 위시한 수입 국가들은 다른 공급

1) Thai Frozen Association 자료 (2013년 5월)

2) Thailand Stock Exchange Report (2013년 4월)

3) 현지 매장 조사 - 조사자 주

4) Thailand Stock Exchange Report (2013년 4월)

5) Bangkok Post 기사 'TUF maintains sober Q2 outlook' (2013년 5월 14일)

6) Bangkok Post 기사 'Sickly CPF profit from shrimp' (2013년 5월 15일)

국을 알아보고 있음

TFFA 태국 냉동 식품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의 새우 공급량은 전년대비 약 35만 톤이 줄어든 48-50만 톤, 냉동 수산물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20% 감소한 650-700억 бат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 위주의 태국 수산물 가공산업 바트화 강세 등의 이유로 약간 위축된 가운데 한국산 수입 수산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원료 수산물의 수입도 감소함
- 한편으로는 한국의 참치캔, 콩치 통조림,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기업들은 태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

2. 수산물 수입 동향 및 전망

품목 HS코드 *생략가능	'12.1~4	'13. 1~4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수산물	966,488	1,098,926	+13.7%	미국	110,165	대만	103,404	한국	99,575	99,575
참치	192,482	172,442	-10%	대만	26,513	바누아투	20,312	한국	17,041	17,041
고등어	23,969	22,856	-9.5%	일본	11,163	노르웨이	6,440	중국	3,214	1,064
전갱이	1,421	1,113	-22%	노르웨이	552	네덜란드	317	한국	100	100
콩치	56,698	33,770	-40%	일본	13,579	중국	14,989	모로코	2,723	525
굴	697	1,136	+63%	프랑스	489	호주	244	한국	123	123
김	12,516	12,831	+2.5	한국	9,469	중국	2,817	일본	341	9,469

자료 :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무역 통계 자료 (www.moc.go.th)

□ 2013년 1~4월까지의 태국 전체 수산물 수입액은 10억 9,800 만 USD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함
한국산 수입 수산물의 주종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료 수산물 수입 금액은 감소함

□ 고등어

전체 수입금액 31% 감소한 가운데 일본산 수입 급등하여 전년대비 59% 금액 증가하고 노르웨이산 역시 14% 수입 금액 증가함

전년도 1위 수입 국가인 중국산은 68% 감소하였고 한국산도 41% 수입금액 감소함

- 고등어 가격

Gourmet Market	1kg /330 B	(노르웨이산 / 통냉동)
Makro	1Kg /49, 45 B	(일본산 / 통냉동) - 사이즈 커지고 가격 하락
	1 KG / 95 B	(노르웨이산 / 통냉동)
Big C Supermarket	1 Kg / 64 B	(일본산 / 냉동 제품을 상온에서 판매)
Tops Supermarket	1 Kg / 297 B	(노르웨이산 / 냉동)
	1 Kg / 445 B	(노르웨이산 / 해동 후 4/1 등분하여 필레 손질한 소포장)

			
MAKRO 일본산 49-55 Baht/Kg (프로모션)	Makro 노르웨이산 (95 Baht/Kg)	Tops 노르웨이산 (445 Baht/Kg)	Tops 노르웨이산 (297Baht/kg)

□ 전갱이

- 전갱이는 통조림 등 가공 식품의 원료 또는 일부 신선 유통이 되는 품목으로 작년 4월까지 전체 41%를 차지하며 1위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올해 동일기간 동안 5배 이상 수입 금액 감소하여 3위 수입국에 머무름

□ 콩치

- 작년 4월 기준 콩치 수입금액의 약 44%에 달하던 중국산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일본산 콩치의 수입 금액이 약 3배 금액 증가하며 일본산과 모로코산이 각각 33%를 차지함
- 한국산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져 약 5.6배의 수입액 증가율을 보이며 올해 4월까지 295 천 USD 수입됨

□ 참치

순위/국가명	태국 참치 수입 현황								
	2012년 1월-4월				2013년 1월-4월				
	Ton	금액 (천불)	점유율	Kg 가격 (USD)	Ton	금액 (천불)	점유율	Kg 가격 (USD)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2,309	192,482	100	2.7	70,495	172,442	100.0	2.4	-10%
1 대만	17,104	49,251	25.6	2.9	10,485	26,513	15.4	2.5	-48%
2 바누아투	9,854	26,792	13.9	2.7	8,509	20,312	11.8	2.4	-24%
3 한국	5,884	13,881	7.2	2.4	7,543	17,041	9.9	2.3	23%
4 필리핀	1,956	4,763	2.5	2.4	5,653	14,188	8.2	2.5	298%
5 인도네시아	3,315	8,862	4.6	2.7	5,831	11,918	6.9	2.0	34%
6 미국	6,687	15,526	8.1	2.3	4,917	11,473	6.7	2.3	-26%
7 일본	2,690	9,071	4.7	3.4	4,274	10,348	6.0	2.4	14%
8 중국	3,857	11,607	6.0	3.0	3,774	9,621	5.6	2.5	-13%

자료 :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무역 통계 자료 (www.moc.go.th)

- TUF와 같은 주요 참치 수입처에서 밝힌바와 같이 바트화의 강세와 수입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생산 및 공급량이 감소한 가운데 참치의 원료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금액 약 10% 감소함

- 1위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대만의 감소폭이 커서 48% 감소한가운데 한국산 (123%)과 필리핀산 (298%) 참치는 수입 증가
- Kg당 수입가격은 전년 2.7 USD에서 2.4 USD로 감소

□ 굴

- 올해 4월까지 신선 및 냉동 굴의 수입은 60% 이상 증가하여 145톤, 1,136 천 USD 수입됨
- 한국산 굴은 전년 64,586 USD에서 122,707 USD로 대폭 증가하여 수입 국가 3위, 전체 수입 금액 중 10.8% 비중

□ 김

순위//국가명	태국 김 수입 현황									
	2012년 1월-4월					2013년 1월-4월				
	Ton	금액 (천불)	점유율	Kg 가격 (USD)	Ton	금액 (천불)	점유율	Kg 가격 (USD)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294	12,517	100	9.7	1,185	12,831	100	10.8	3%	
1 한국	402	6,073	48.5	15.1	700	9,469	73.8	13.5	56%	
2 중국	684	5,660	45.2	8.3	399	2,817	21.9	7.1	-50%	
3 일본	16	278	2.2	17.6	32	341	2.6	10.8	23%	

자료 :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무역 통계 자료 (www.moc.go.th)

- 올해 4월까지의 김 수입 총액은 12,831 천 USD로 전년대비 3% 증가
- 2012년부터 중국산을 추월하여 지속적인 수입 상승을 거듭했던 한국산 김은 전체 수입 비중의 약 74%를 차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56% 수입 금액 증가함

3. 동향 분석 - 김

- 8년전 설립된 신생 스낵 회사인 타오케노이의 김스낵 개발과 활발한 마케팅으로 태국의 시장을 확장하고 아시아, 미주 그리고 한국에까지 김스낵을 출시하고 있으며 오이시, 싱아 맥주 및 각종 스낵 제조업체들이 김 첨가 스낵 및 김 스낵을 생산 판매하여 경쟁 과열

- Taokae Noi의 김스낵 시장 점유율은 자사 집계 약 70% 선으로 선두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일본 브랜드 Seleco의 태국생산 제품과 100% 한국산 김만을 재료로 쓰며 포장 및 상품명 또한 한국식으로 구성한 Nature Best Food사 제품 등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품의 품질, 포장, 그리고 마케팅에서 경쟁

- 이외에도 유기농 전문 유통매장인 Lemon Farm 및 ORGA 등 소규모 특화 브랜드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김스낵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고 기존 타케노이 등 대형 회사 제품이 MSG 및 기타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점차 저지방, 무지방, MSG 무첨가, 100% 한국산 원료, 저염도 등 보다 웰빙 지향적인 김스낵 제품이 출시되어 경쟁이 가중

- 한국산 조미김도 천일염을 사용한 김이 올해 THAIFEX에 출품되었으나 제품의 특징적인 ‘천일염 사용’이 현지어 또는 영어 표기 되어있지 않음
- 김스낵의 유행으로 전장김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김스낵 제조사들은 한국산 김을 사용하여 한국산 김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중국산에 비해 탁월한 품질을 갖고 일본산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김 수출 비중이 70-90%선으로 중국산과의 점유율을 완전 반대 상황으로 역전 7)
- 태국의 김스낵의 시장 확산으로 기존 태국인들이 스낵으로 먹었던 한국산 조미김, 조미 돌자반 김 등 한국산 가공 김제품의 저변과 인기도 함께 확산되어 한국산 김은 김스낵의 원료인 건조 김과 김 가공품 모두 수입량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
- 기존에 스시용 김 등과 함께 구분되어 진열되었던 한국산 조미 구이 김 및 자반가공 김 가공 제품들이 다양한 태국산 김스낵과 함께 일괄 진열되어 이미 밥반찬이 아닌 스낵으로 소비되던 한국산 김제품의 소비자 노출 빈도가 보다 높아지게 되었고 일부 슈퍼마켓 체인의 이러한 진열 형태는 현재 대부분의 매장으로 확산
- 또한 김스낵의 유행으로 감자칩, 크레커, 쌀과자, 팽창 과자, 각종 튀김 과자 등 다양한 스낵에 김이 첨가되는 등 스낵 원료로서 김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한국산 김이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8)
- 기타 식음료 기업의 과자 시장 진출은 이들 기업들이 김스낵 시장의 시장성과 전망을 높이 사고 있다는 반증

태국산 김 가공 제품				
- 약 15 개 제조사 (23개 브랜드) - 종류: 구이 조미김, 튀김 조미김, 전분 함량이 높은 일본식 Tempura 스낵, 김첨가 감자칩, 김 쌀 과자, 완두콩 및 콩 스낵, 팽창 스낵, 무지방 김스낵 등 - 가격: 9-39บาท 선으로 소형포장이 주종이므로 실종량비 가격은 비싼 편임 (예: 타오케노이 마늘맛 구이조미김 김함량 95% 20g - 39บาท)				
				

7) 태국 관세청, 상무부 자료 (공식 발표 자료) 인용 2012년 6월

8) 월등히 높은 수입 단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의 점유율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한국산 김에 대한 김 스낵 제조사 등 바이어의 신뢰와 선호 그리고 오랜 유대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스낵 등 제조사 등이 김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생산했을 때 맛, 향, 색깔 및 식감에서 월등한 한국산 김을 선호함-조사자 주 (업체 인터뷰)

				 우육 찐국수 전문점에 비치된 김스낵. 돼지껍질 튀김과 함께 찐국수와 함께 먹기도 함
				
				
				
				

수입 김 가공 제품

		수입제품 중 최저 시장가 형성 맛과 인기면에서는 현지인들이 가자 선호 하는 수입 조미김. 전장 조미 구이김 기준으로 30g - 45-55 бат 선으로 wet market에서는 정식 수입제 품 개당 35бат. 자주 마트의 행사 상품으로 등장, 가격 인 하요인으로 작용.
		최고 시장가 형성 일본인이 주고객 조미김 40 g - 169 бат
		선호도 떨어짐 대만산 조미김 30g - 60бат

■태국 김 스낵시장 규모

연도	시장규모 (백만 바트)	달러화 환산
2012	2,800	약 93만 달러
2011	2,000	약 66만 달러
2010	1,700	약 56만 달러
2009	1,500	약 50만 달러

※자료 : Matichon Public 사(Prachachat News Online), Siamturakij Media 사 외

- 태국 김 스낵 시장 규모는 28억 바트 (약 1천 1백 억원)에 이르며 매년 15-20%의 높은 판매 성장
-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 있는 건강 스낵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김 스낵 회사의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가 이를 뒷받침

- 태국의 다양한 김스낵 시장에서 천일염 사용, 무염산 지주식 재래김 사용 (무화학 처리김), Trans Fat 이 전혀 없거나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저염 등 보다 건강과 품질에 신경을 쓴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타 스낵 부분에서는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트렌드이므로 프리미엄 조미김 또는 김스낵 회사는 제품의 특징점을 영어로 표기한 제품과 기존 태국 시장에 흔치 않은 컨셉의 제품을 바이어에게 샘플로 보내거나 박람회 또는 수출 상담회를 이용 할 수 있을 것